

의원들 “광주시 돔구장 일방 진행…시민에 부담”

차시장 “일방 추진 없어…재정 부담 땀 접겠다”

광주시의 돔구장 건설 계획을 놓고 박광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돔구장 등 지역현안 간담회 자리에서다.

간담회는 의원들이 박 시장에게 돔구장 건설 추진관련 정보를 요구해 이뤄진 자리였다. 따라서 간담회장은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비공개로 1시간30분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시의 일방적 돔구장 사업 진행이 장기적으로 시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박 시장을 압박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없으며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계획을 접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 초반 돔구장 사

■박광태 광주시장-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의원들 내년 지방선거 의식 차시장에 ‘견제구’

업체들과 관련, “포스코건설이 MOU 체결 과정에서 골프장 인가, 워터파크 운영, 수익용 임대아파트 수천 세대로 분양 등을 인센티브로 요구했다”며 “시는 3년 전부터 해외관광객 유치에 민속촌·음식·공예 등을 컨셉으로 한 관광레저타운을 준비해왔는데 돔구장 필요성이 제기되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포스코건설 측과는 1년 가까이 접촉했으며 연말까지 제안서를 보내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 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사기업인 포

스코건설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매년 운영비를 수익으로 보장받으려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시민의 부담이 된다면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조영택 의원은 “시민 부담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강운태 의원은 “광주시가 최소한 조건을 포스코건설에 내걸어 수용할 때만 제안서를 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는 대안을 제시했다.

강기정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 과정에서 돔구장을 지을 것처럼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신규주택 건설 등 논란이 일었다”며 “왜 시민 여론수렴을 먼저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특히 강 의원은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박 시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 언론이 앞서 갔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박 시장의 영상각 살리기 사업 기공식 참석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가끔 고성이 흘러나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유니버시아드(U)대회 지원특별법 처리와 관련, 기존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제정법 취지는 2차 개정 등을 통해 살리기로 했으며 의원들은 올해 안에 U대회 지원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의원들은 CT연구원 광주 설립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광주 지역의 거점대학 R&D지원 조건으로 CT연구원 설립을 못박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에이즈를 추방하자”

‘세계 에이즈의 날’(1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에이즈의 날 상징을 만들어 보이며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사회 빛 갇을 때 됐다”

李대통령 라디오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29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에 대해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이 이룬 기적이자 세계사의 놀라운 성공스토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20세기 국제원조와 협력의 성공모델이



자 21세기 개발도상국들의 등대”라며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빛을 본격적으로 갇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는 무엇보다 성공의 경험을 인류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이룬 정치, 경제적 성공 노하우와 함께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국가로 이끈 우리의 꿈도 함께 나눌 것이며, 그리하여

전세계에 우리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개인이나 기업이 사회에서 적절한 위치가 되면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듯이 국가도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軍)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등에 언급,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 “해외원조는 인류보편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임동욱 기자 tuim@

광주시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광산구는 기초단체부문 최우수기관

광주시가 소방방재청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추진실태 중앙합동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광산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소방

방재청은 광주시가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비해 타 자치단체에 비해 각종 재난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번 수상으로 시는 1억5천만원, 광산구는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형 재난에 대비해 올해 ‘녹색방재도시’와 ‘인간중심의 방재도시’ 비전을 설정했으며, 그동안 자연친화적인 재해위험지구정비, 재해위험지도 작성, 효율적인 예·경보 시스템 등을 구축한 바 있다. 또 재난심리지원센터와 민간모니터요원, 지역자율방재단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에 1천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모범적인 정책을 실시해왔다. /윤현석기자 chadol@

‘2009 자랑스러운 원우상’

임태희 장관 등 4명 선정

임태희(사)노동부 장관이 서울과학종합대학원(총장 윤은기)이 주는 ‘2009 자랑스러운 원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은 지난달 30일 임 장관과 함께 이영하 주 레바논 대사,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 방일석 올림픽한국 사장 등 4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장관은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이영하 대사는 국제평화 수호 활동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대학원 측은 전했다. /연홍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100억원대 ‘광주천 인도교’ 예산 전액 삭감

7~8일 예결위에 수정안 상정 재논의될 듯

월세 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100억원대 ‘광주천 인도교’ 설치(본보 11월 30일자 보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광주시 환경복지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천 인도교 설치 예산’ 세입부문 ‘지역개발기금 시도용자금 수입’ 20억원과 세출부문 ‘광주천 인도교 설치’ 20억원, ‘차입금이자 상환’ 2천129만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광주시가 ‘2011세계환경포럼’과 연계해 서구 상무소각장과 제1하수처리장을 연결하는 100억원

규모의 ‘광주천 인도교’ 가설 사업비 중 내년도 예산안에 ‘광주 세계환경포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간 교섭이 오가고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등 파행을 겪은 데 이어, 삭감 의결 조건으로 ‘재검토’ 단서조항을 붙여 적절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식 교사회위원장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의결한 뒤 “단 다리 건설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당초 계획했던 환경엑스포 행사

가 축소돼 상징물 개념이 아닌 다리 개념으로 시설하고자 함으로 다리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관계 부서에서 시설과 규모에 맞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재검토하라는 단서를 조건으로 삭감한 내용이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예산 심의는 예비심사 성격이 강하다”며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상임위에서 단서조항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삭감된 예산안은 오는 7~8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안으로 상정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오니아 1식 2조 페스티벌!

합작리 이온수기 위생증상 개선효과 획기적
노비타비대 증정행사!!

이온수기 구매시 최대 1+1 증정행사를 실시합니다.
합작리 이온수로 건강도 챙기고, 비대까지 얻으로!

● 파동양에 대수영 / 소파양양 / 천천천 / 천천천 / 천천천 / 천천천

만독무독 시일제쓰림 전과제발방 및 물수비용 70% 절감

만독무독 일기비 50~70% 정부 무상지원 정부보조금 신청가능

● 그 밖의 혜택

- 1. 물속에서 100% 살균 효과
- 2. 물속에서 100% 살균 효과
- 3. 물속에서 100% 살균 효과

1. 물속에서 100% 살균 효과

2. 물속에서 100% 살균 효과

3. 물속에서 100% 살균 효과

082-323-5070 / 015-155-5070

081-155-11280 / 015-155-11280